

전남 중부권

154년만에 나누는 '우의'

다산-제자 황상家 왕래 약속문서 '정황계' 복원 교환

다산 정약용과 그의 제자 황상 양 집안의 우의를 보여주는 '정황계(丁黃契)'가 복원돼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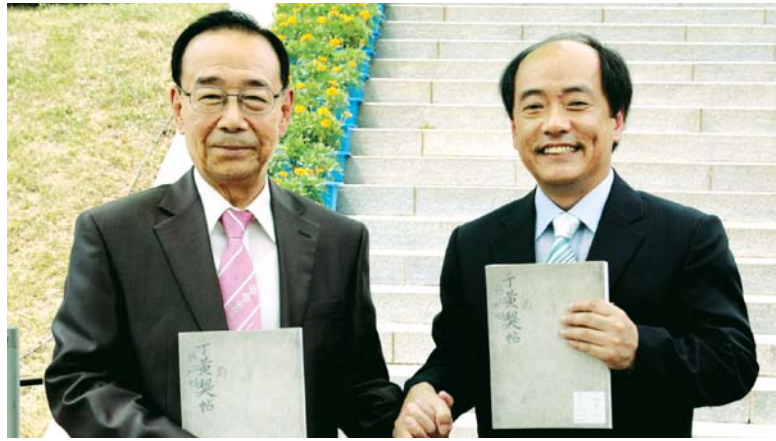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정황계는 다산 정약용(1762~1836)과 그가 가장 아낀 제자로 알려진 치원 황상(1788~1870)의 아름다운 인연을 보여주는, 정씨와 황씨 가문의 우의를 약속한 증서다.

1848년 다산의 아들 정학연과 황상이 2별을 작성해 한 벌씩 나눠 가지고, 집안 대대손 손 관계를 유지키로 맹세했다.

정황계에는 '두 집안의 후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신의를 맺고 우의를 다지는 계(契)로 삼게 하고자 한다. 아이! 제군들은 삼가 잃어버리지 말지자...'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양가의 왕래는 끊어졌다.

정씨 집안이 보유한 증서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보관하고 있으며, 황씨 집이 보유한 증서는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황수홍 집안에서 새롭게 발굴돼 공개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강진군의 주선



다산 선생의 7대손인 정호영가 후손(오른쪽)과 치원 황상 선생의 4촌이며, 다산 선생의 제자인 황지초의 5대손인 황수홍가 후손이 두 집안의 교류 약속을 담은 '정황계(丁黃契)'를 교환하고 있다.

으로 다산 선생의 7대손인 정호영가(家)와 치원 황상 선생의 4촌이며, 다산 선생의 제자인 황지초의 5대손인 황수홍가(家) 두 집안이 강진 청자축제 개막식에서 정황계(丁黃契)를 상호 교환했다.

두 집안은 이번 교환을 통해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과 정황계 작성 154년을 맞아 후손이 다시 대대로 신

의를 맺고 우의를 다질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기뻐했다.

한편 강진군과 예술의 전당, 단국대가 공동 주최한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는 강진군 다산기념관에서 제40회 강진청자축제 기간(7월 28~8월5일)에 열리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h

장성 딸기 공동선별장 연말 가동

장성군이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진원면 산동리 일원에 660㎡ 규모의 딸기 공동선별장을 준공,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딸기 선별은 주로 협소한 공간에서 공동 선별작업이 이뤄져 업무

의 효율성이 저하됐으나, 이번 딸기 공동선별장 준공으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선별이 가능해 업무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 가격화·표준화를 통한 선별이 가능하고, 포장·출하작업을 일괄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상품성 향상과 물류비 절감 등 소득향

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동 선별장 등 현대화 시설을 갖춘에 따라 딸기 대량생산과 가공·유통을 넘어 농촌체험관광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현재 추진 중인 수경 재배 시설과 고설 육묘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고품질 친환경 딸기생산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김홍희기자 yongho

농수산물 수출 약진

상반기 9146만달러...전년보다 30% 늘어

올 상반기 전북 도내 농수산물 수출액이 전년보다 30% 급증했다.

전북도는 "올 상반기 도내 농수산물 수출액이 총 9146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신선농산물과 축산물의 증가 폭이 각각 39.6%, 49.9%에 달한 덕분이다.

특히 일본으로 수출은 지난해보다 50% 급증했다. 지난해는 대지진 피해로 수출액이 2010년과 비슷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일본이 3417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1251만달러),

미국(917만달러), 미국(694만달러), 대만(633만달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에서는 김(원조)이 1576만달러로 으뜸을 차지했으며, 장미(982만달러)·닭고기(715만달러)·조미 김(686만달러) 등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지진 피해에서 벗어난 일본과 한류 열풍이 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덕에 전체적으로 도내 농수산물의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분리배출 표시' 포장재 사용 연장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던 '분리배출 표시' 포장재 사용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는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처장 임재욱)는 "시스템에 등록된 관내 168개 업체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문의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고물량 포장재 연장사용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표시'제도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서 종이팩·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분리배출 표시가 복잡하고, 가족성

이 낮은 재질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2010년 10월 분리배출 표시 지침을 개정, 1년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옛 도안으로 표기된 재고물량 포장재에 대한 민원제기와 국내외적인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개정지침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자원순환처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서 공단에 재고품목 및 물량 파악 후 연장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유예기간 연장결정에 따라 분리배출표시 대상 사업장의 경비절감과 폐기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계곡물에 무더위 싸막~

볼벌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9일 피서객들이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계곡을 찾아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대 전공체험 '인기 짱'

내달 10일까지 고교생 2400명 참가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지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이뤄지는 전공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대 입학본부 입학사정관실은 지난 25일부터 도내 고교생 2400여 명을 초청해 8월 10일까지 33개 학과(부)에서 전공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공체험 행사는 잠재적 교수 수요자들과 고교생들에게 대학과정 전반의 커리큘럼을 이해시키고, 고교와 대학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우수 인재 발굴 및 유치를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전공학과를 직접 방문해 교수님과 대화하며 실험에 참여해봄으로써 대학과 전공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종민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고교생들을 직접 대학에 초청해 전공체험을 실시하는 목적은 고교와 대학이 상호 연계를 강화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교육 수요자들에게 전공분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돕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기념품 아이디어 찾아오"

김제 지평선축제

김제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는 8월 13일까지 15일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김제시 관광·축제 기념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시는 문화적 특성과 지평선축제의 내용을 담은 관광·축제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분야는 김제시만의 전통과 특성을 대표하고 실용성과 상품성을 갖춘 기념품(공예품, 공산품)에 관한 아이디어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지평선축제 홈페이지(festival.go.kr)에서 공모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단신

군산시 알코올센터 '건강 가족 만들기' 협약

군산시 알코올 상담센터는 지난 27일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한 가족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으로 관대한 술 문화로 인해 우려되는 가정 내 문제를 해소하고, 가족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알코올 상담센터는 알코올 중독자 상담, 음주 폐해예방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부부상담 및 교육·가족합 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백금석기자 nogusu

남원시-곡성군 상생발전 협약

남원시와 곡성군은 지난 29일 양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서를 체결했다. 남원시와 곡성군은 문화예술 교류 협력방안, 경제지역 농업인 지원·관리 방안, 체육행사 교류, 섬진강 습지보호구역 지정 공동 추진, 섬진강 교량 유지관리 대

책,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공동 협력 등 지역 공동현안에 대한 폭넓은 교류와 연계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약속하고, 앞으로 실무 부서간 수시 간담회를 실시해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경북 군위군 농업경영인 회원들 고창 방문

농업경영인 고창연합회(회장 류계관)는 최근 1박2일간 경북 군위군 농업경영인회 회원들을 초청해 친선교류 행사를 가졌다. 군위군 농업경영인(회장 박종식) 회원 40여명은 고창군 상하면 장호마을에서 어촌체험을 실

시한데 이어 선운산관광호텔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고창군농업경영인 회원 60여명과 함께 영·호남교류와 농업기술 정보 교환 등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을 가졌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부안군, 자원봉사발전위 15명에 위촉장

부안군은 지난 27일 김호수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자원봉사 발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이날 문찬기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자원봉사센터 건의사항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등 자원봉사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명옥헌 가는 길...백일홍 만발

다양 명옥헌 원림(명승 제58호) 가는 길에 배롱나무 꽃이 만발해 지나가는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배롱나무는 꽃이 100일 동안 핀다고 해 백일홍(百日紅), 나무를 손으로 끊으면 잎이 움직인다고 해 '간지척 나무'라고도 불린다. <담양군 제공>

다양 명옥헌 원림(명승 제58호) 가는 길에 배롱나무 꽃이 만발해 지나가는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배롱나무는 꽃이 100일 동안 핀다고 해 백일홍(百日紅), 나무를 손으로 끊으면 잎이 움직인다고 해 '간지척 나무'라고도 불린다. <담양군 제공>

"장흥 대덕종교, 말산업 명문고로"

군·도교육청과 맞춤형 인력양성 업무협약

장흥군이 말(馬) 산업 인력양성 특성화고로 지정된 대덕 종합고등학교(가칭 한국말산업 고등학교)의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장흥군은 최근 전남도교육청, 대덕 종합고등학교와 3주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말 산업 인력양성하고, 대덕종합고등학교를 말 관련 대표 명문고로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장흥군이 말 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대덕종합고등학교에 대해 지난해 7월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말 관련 특성화고로 지정

받은 데 이은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대덕 종합고는 2012년도 신입생 모집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친환경 블루오션 산업으로 각광 받으며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말 산업이 미래 장흥군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발 빠르게 역점 육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은 대덕종합고등학교의 기반 시설 확충 사업비로 57억 1500만원을 확보해 마사, 실내 마장, 실외 마장, 기숙사 등 시설을 2013년 7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홍희기자 kykim

담양 봉산면 자치위

주민건강 지킴이 활동

담양군 봉산면 주민자치위원회(회장 박요진)가 '주민건강 지킴이'로 나섰다. 봉산면 주민자치위는 지난 23일 죽림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일환으로 '찾아가는 주민건강 지킴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위는 무더위로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문강사를 초청, 마을회관과 모정을 순회하며 수치침 등 한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 자치활동과 마을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현안사업 등 주요 군정에 대해 홍보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gg